

# 순천시, 순천만습지 불법개발행위 엄단

### 약 30000㎡ 불법 행위 대책 논의 현장보고회 “대집행·구상권 행사 등 끝까지 책임 물을 것”

순천시는 최근 순천만습지 인근 염전·농지 등의 불법 개발행위 현장에 불법개발행위 대책을 논의하는 현장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는 생태계보호구역인 해룡면 농주리 주변 순천만습지 인근에서 약 30,000㎡에 달하는 토지 불법 개발행위에 따른 잡상을 알리고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허석 순천시장은 시 관계부서 공무원과 함께 불법개발행위 현장에 점검하면서 28만 순천시민과 함께 지난 20여년 동안 각고의 노력을 다해 보존해온 순천만에서의 불법개발행위에 단호히 대처해 어떠한 불법행위도 용납되지 않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관계부서에 주문했다.

시 관계부서에서도 불법 개발행위지의 원상복구를 위해 대집행 및 구상권 행사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하겠다는 대응계획을 보고하면서,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묻고 예방활동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한편 순천만습지 인근 불법개발행

위는 부동산 개발업자 A씨가 2016년경부터 올해 2월경까지 ‘공원 조성 중’이라는 간판을 게시한 후 염전, 농지 등 약 30,000㎡에 달하는 토지에 성토, 돌담, 조경, 펜스 설치 등 불법으로 토지를 형질변경 하는 개발행위를 자행하였다.

순천시는 급변 초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후 수차례 자진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형사고발하였으나, A씨가 원상복구에 불응한 채 추가적인 불법 개발행위를 자행하고, 행정소송 제기 등을 통해 맞서고 있다.

순천시 관계공무원은 “순천만에서의 대규모 불법개발행위를 그동안 인지하지 못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해 시민들께 죄송스럽다”면서 “불법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어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고,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과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허석 순천시장은 “순천만 습지의 부분별한 불법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예외 없이 어떠한 비용과 대



가를 차르더라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28만의 위대한 순천시민과 함께 순천만습지를 반드시 지켜낼 것이고 항구적인 보존을 통해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물려 줄 수 있는 소중한 자연유산으로 가꾸어 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순천만습지 일원은 갈대밭, 염습지 등 340여 종의 다양한 식물의 서식지이며, 희귀조류 36종을 포함한 240여 종의 철새들이 도래하는 곳으로 동식물의 다양성을 체험할 수 있는 생태계의 보고이다.

2018년 7월 순천시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18년 10월에는 미국 동부연안, 캐나다 동부연안, 브라질 아마존

강 하구, 유럽 북해연안과 함께 세계 5대 연안습지로서 국제적인 습지조약인 람사르협약이 인정하는 습지로서 인증을 받았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일출과 일몰이 가장 아름다운 곳 중 한곳일 뿐만 아니라, 국내 최대의 흑두루미 월동지이며, 검은머리갈매기, 알락꼬리마도요, 큰기러기 등이 도래하여 국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연안습지로서 대한민국을 넘어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자연유산으로 보존되어야 할 곳이다.

또 지난해 현지 실사를 마치고 2021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앞두고 있기도 하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 광양시, 수돗물 공급 과정 ICT 접목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 구축’ 추진 실시간 수질감시 및 위기 대응체계 구축해 신뢰도 향상

광양시는 내년 완료를 목표로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사업을 통해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 ICT(정보통신기술, information&communication technology) 기술을 접목해 소비자가 믿고 마실 수 있는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물 공급과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그동안 환경부와 자원 협의를 추진했으며, 지난달에 협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총사업비 126억 원 중 88억 원은 국비로, 나머지 38억 원은 시비를 확보해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내용은 △실시간 수질 감시 및 관리를 위해 ‘재염소 설비’, ‘정밀여과장치’, ‘수질측정장치’ 구축 △수질오염에 따른 위기대응을 위해 ‘자동드레인 설비’, ‘관세척(flushing) 작업’, ‘원격누수감시 센서 인프라’ 구축 △각종 수질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소규모유량계’, ‘스마트미터링계’, ‘스마트수압계’, ‘통합관제시스템 인프라’ 구축이다.

시는 사업이 완료되면 실시간 수질감시 등을 통해 불의의 수질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도관 내 침전물(철, 망간 등)을 주기적으로 제거하여 더욱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세밀한 누수감시체계 구축을 통해 시(市)의 전반적인 유수율을 향상시켜 수돗물 신뢰도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 여수 오동도, 탐방객 중심 ‘새단장’

여수시는 오동도 입구 일원 진입 입도 및 광장을 정비하고, 관리 등을 신중히 탐방객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했다.

매년 300만 이상의 탐방객이 방문하는 우리나라 대표 생태관광지 오동도 입구 진입로와 주차장 주변은 무질서하게 설치된 각종 시설물과 노후 안내표시판으로 환경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시는 컨테이너 가설물을 철거한 후 통합관리동을 신축하고 탐방객 이용이 많은 정문 화장실을 신축·확장했다.

쾌적한 거리 환경조성을 위해 고압수전 전신주를 지중화하고, 주차장 등과 관련된 장비를 신설해 이용탐방객 편의를 도모했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 보성군, 전 군민 무료 마스크 지원

### 4억 가까운 예산 확보해 총 53만 장 무료 배포

보성군이 전 군민에게 무상으로 마스크를 지급한다.

보성군은 겨울철 코로나19와 독감 등의 동시 유행을 막고 군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지난해부터 마스크 무상 배부 계획을 수립하고, 마스크 예산 확보에 뛰어들어 본 예산과 추경 등에 4억 원 가까운 예산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학생·유아, 취약계층을 포함한 전군민에게 총 53만 장의 마스크가 무료 배포될 계획이다. 배부는 12월 1일경 읍·면사무소를 통해 각 가정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다중이용시설인 중점관리시설(9종), 일반관리시설(14종)에도 비상용 마스크가 배치된다. 이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혼란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대책이다.

김철우 군수는 “코로나19를 예방하고 군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다



하고 있다.”라면서 “아직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이 최선의 예방책이니 불편하시더라도 본인의 건강과 이웃의 건강을 위해 마스크를 잘 착용하시고, 방역수칙을 준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은 선제적인 코로나19 예방 조치로 지난해부터 전 군민 독감 백신 무료접종을 시행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지난 2월에는 전 군민 무료 KF 마스크 배부, 마스크 대란이 일었던 3월에는 전국 최초로 직접 제작한 면 마스크를 모든 군민에게 무상 배포한 바 있다.

보성=김택순 기자



## 고흥군, 드론 앵커기업 유치 나섰다

### 기업 지원사항 및 협력분야 발굴 등 기업 목소리 반영

고흥군은 드론 앵커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주요 드론기업 ㈜네온테크(대표 황성일)를 방문하여 기업 지원사항 및 협력분야 발굴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군에서는 고흥군 일원에 ‘21년 6월 준공을 목표로 드론평화 지식산업센터’를 건립 중에 있으며, 인근에 약 4만평의 규모로 무인항공 영농기술 특화농공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등 드론 산업 인프라 및 비즈니스 환경 구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에 방문한 ㈜네온테크는 20년 차 벤처기업으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이 제조업체로 시작해 회사의 차세대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2015년도에 드론사업부문을 신설, 드론 물류배송과 영상촬영 분야 등에서 선두주자로 나서고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드론산업 인프라 구축을 기반으로, 기업 정주여건 개선, 드론시장 창출과 투자인센티브, 그리고 인력수급 방안 등 기업유치를 위한 획기적인 지원책으로 드론기업을 고흥군에 유치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 오늘의 위협을 내일의 안전으로

마스크를 만들어 나누고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있어  
우리는 코로나19를 반드시 이깁니다.

자랑스러운 시민이  
평화로운 일상을 하루빨리 누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광산구